

지역 소식통

부안군,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사업 실시

부안군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가 지난 10월, 부안군 내 축사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축사시설의 전기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5년간 동물 사육시설(돈사, 우사 등)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중 25.9%인 8건이 전기화재로 인한 것이며, 건당 평균 재산피해는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골조 경량 패널 구조인 축사시설은 화재 시 전소될 가능성이 높고, 가축 폐사로 인한 재산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부안군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축산과와 협력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축산 농가를 선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분전반 등 주요 전기설비에 쌓인 먼지와 분진을 제거하고, 절연 세정제 BTS-77을 사용해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치과 구강 이동교실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치과 무의면 구강이동교실(이하 이동교실)'을 운영한다. 이동교실은 구강보건 이동버스를 활용해 전문 의료진이 출장 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돕기 위한 시 보건소의 특별한 사업이다.

앞서 시 보건소는 2022년 산내면, 2023년 북면과 갑곡면, 2024년 상반기 옹동면과 칠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교실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반기에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 태인면 38개 주민들에게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교실에는 치과공중보건 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첫발

심덕섭 고창군수, 라오스 현지서 안정적 적응 지원 등 관리 체계 방안 협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라오스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첫발을 내딛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4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라오스 비엔티안 노동사회복지부를 찾아 이누스 캄심사와 국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심 군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유치 시 고창의 농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라오스 정부 역시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관리체계 방안 조율하고 협의했다.

앞서 고창군 농촌인력팀은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유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머물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라오스 근로자들을 만나 농작업 역량과 고창군 농촌 적응능력을 꼼꼼히 살펴면서 우수 근로자 선발 가능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고창군은 농가의 수요를 파악, 근로자 점검 등 절차를 거쳐 봄(과작기)·여름(수확기)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해외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2년 캄보디아 노동부, 2024년 베트남 하남성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



심덕섭 고창군수가 라오스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첫발을 내딛었다.

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용미생물 연간 공급량 2.5배 360→950톤 확대

고창군, 배양시설 증설·고온성미생물 배양장 신축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장이 단일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증설과 부지 내에 고온성미생물 배양장을 신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생물 배양시설의 생산 가능량은 지난해 최대 360톤에서 올해 950톤까지 대폭 확장됐다. 군은 미생물 공급 확대를 통해 연작장애가 감소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토양 속 오염 물질을

분해해 환경을 정화하며, 항생물질을 생성하여 작물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미생물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업에서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약 300여 농가가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용미생물로는 EM, 광합성균, 고초균, 고온성미생물, 불가사리액비 등이 있으며, 이들은 농작물 생육 개선, 토양 환경 개선, 생장 촉진, 축

사 약취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농가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양시설 확대 및 협력 넘치는 미생물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고창군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농축산업 종사자 및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농어촌공, 하반기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5일 2024년 제1기 하반기 운영대의원 회의의 대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지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지사 발전을 위한 의견과 평소 물관리, 시설관리, 농지은행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원중 지사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무더위가 여름 가뭄으로 이어져 부안



지사에서도 긴급상황실과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급수절약 방안 등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도 농어업인들과 더욱 소통하고 운영대의원들에게 지문을 지속적으로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 주산지소가 상서면으로 사무실을 신축해, 이전을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비하기 위해 곧 설계가 마무리되어 곧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서주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의 우의를 다지며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관광·청소년 교육 중점'

정읍시, 중국 서주시와 교류 재개... 물꼬 터

정읍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서주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의 우의를 다지며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특히 양 도시는 관광과 청소년 교류를 중점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주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박일 시의회 의장과 이사규 문화행정국장을 포함한 12명의 대표단이 함께 했다.

대표단은 서주시 외사관공실 김은녀 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각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알리기 위해 관광객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양 지역의 경제·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또한 청소년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국제적 시

아를 가진 인물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서주시 공정대학교를 방문해 장능 총장과 함께 지역 내 대학과 교육 및 과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일 의장은 시와 시의회 의 현황을 소개하며 양 도시간 다양한 교류의 기회가 더욱 넓어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이뤄진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 단절됐던 교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며 "양 도시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중단됐었던 양 도시 간의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방소멸 대응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회'(대표 고성환)가 4일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회는 고성환 대표의원과 김승범, 오명제, 서항경, 한선미, 김석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부터 정읍시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분석해 정읍시 실정에 맞는 정책사업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교육, 일자리,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 등의 핵심 분야에 따른 정읍시 특성에 맞는 전략적 수립 방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환 대표의원은 "정읍시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읍민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